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세기 백자 橫手形 茶罐의 祖形

방 병 선

- I. 머리말
- II. 조선의 다기와 용도
- III. 19세기 차 문화와 음다법
- IV. 19세기 白磁茶罐의 종류와 특징
- V. 횡수형 白磁茶罐의 기원
- VI. 맺음말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조선후기 백자 연구』(2000),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2005), 『중국도자사 연구』(2012), 「조반니 벨리니의 〈The Feast of the Gods〉에 등장하는 명대 청화백자」(2012), 「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2013), 「조선후기 백자에 나타난 호랑이 이미지와 표현 고찰: 虎豹猫의 變奏」(2013) 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세기 백자 橫手形 茶罐의 祖形

방 병 선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몇 점의 조선백자 다관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동원 기증품 백자 다관 도1이다.¹ 이 다관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이후 보이는 병형이나 표형, 원형의 몸체에 커다란 고리형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전통적인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납작한 타원형의 몸체 측면에 기다란 손잡이가 횡으로 부착되어 있는 소위 횡수형의 형태로, 이전 시기에는 제작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사카와 다꾸미(淺川巧)가 일제시대 편찬한 『朝鮮陶磁名考』에 그려진 다관 역시 손잡이가 몸체 위에 달려있는 형태로 이 다관과는 다르다.²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다관의 기형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19세기 조선에 어떻게 이러한 기형이 선보이게 되었을까.

본고는 이처럼 매우 이례적인 형태를 지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횡수형 다관의 제작 배경과 그 원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조선시대 다기와 종류, 그 용도에 대해 고찰하고 조선시대 다도와 음다풍습을 중국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남아 있는



도 1. 〈백자 다관〉, 19세기, 높이 7.6cm, 국립중앙박물관

본 논문은 2014년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1 국립중앙박물관, 『동원선생수집문화재 조선시대도자』(1982), p. 172. (동원 136)

2 淺川巧, 『朝鮮陶磁名考』(東京: 朝鮮工藝刊行會, 1931), p. 45.

조선시대 19세기 다관의 유형을 파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다관의 조형 특성과 그 기원을 여러 문헌자료와 시각자료, 중국이나 일본 다관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조선시대 다관의 변천 뿐 아니라 19세기 도자 양식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선의 다기와 용도

조선 개국의 주축이 된 사대부들은 다례를 즐겨하였고 국초부터 「오례의」에 따라 각종 연회나 제례, 사대와 교린의 외교 행사 등에서 다례와 주례를 베풀어 격식을 갖추고 의례를 중시하였다. 신하들에게 위로와 칭찬을 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오는 외교사절에 다례를 베풀면서 원행의 피로를 풀어주고 격려하였다. 특히 중국은 다례를 중시하고 차 마시기를 즐겨하였는데 이런 탓에 조선시대 명에서 온 사절들을 위한 외교 의식이나 연회에는 다례가 빠지지 않았다. 더불어 명의 사절들은 조선으로 들어올 때 명 황제의 하사품이나 개인적인 선물로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여러 자기들을 가져오곤 하였다.³ 중국 사절단이 선물로 가져오는 자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다완과 이와 유사한 다종이었다.⁴ 이들은 청자와 백자, 여러 문양이 새겨진 청화백자로 제작된 것으로 다례의 유행으로 다량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자기제 다기의 종류에는 茶碗과 茶鐘, 茶盞, 茶盅, 茶瓶, 茶罐 등이 있다. 이들 다기들을 부르는 명칭은 중국과 조선에서 일부 혼용되거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먼저 茶盅의 경우 대략 높이가 5~6cm 이하에 구연부의 직경도 10cm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다. 소형인 탓에 잔탁 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茶盞의 경우는 다완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고려시대 전기에 많이 제작된 외측면이 직사선으로 벌어지고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구연부에 추가적인 장식이 없다. 통일신라시대에 수입된 중국의 월주요와 형요 다완들은 중국에서는 다잔으로 불렸다. 다잔은 몸체가 통형으로 제작된 것들도 있으며 통형의 경우 뚜껑이 동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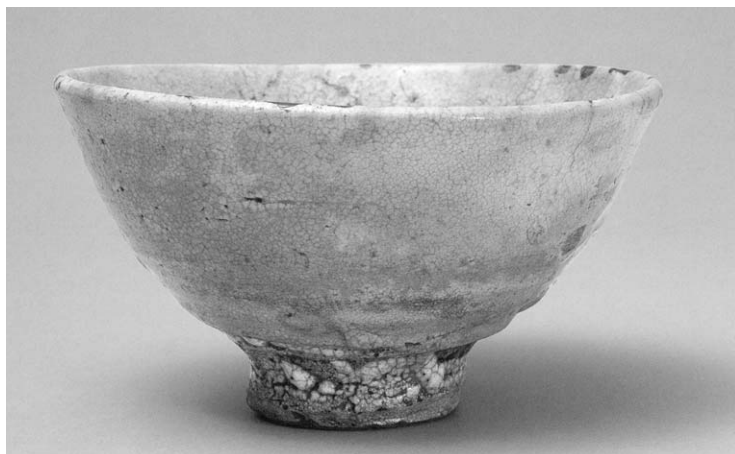
다음 다완과 다종은 형태와 그 출현 시기에 차이를 둘 수 있다. 먼저 다종은 조선시대 문헌에는 ‘茶鐘’, 혹은 ‘茶鍾’으로 기록되었고 역시 차나 술을 마시는 잔의 용도로 사용되었다.⁵ 다종은 명의 사신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 그 처음이고 주로 그들을 접대할 때 茶瓶과 함께 사용되었다. 「오례의」에 의하면 사용제도가 중국 사신에게 다병을 먼저 바치고 다음에 다종과 다구를 받든다고 되어 있다.⁶

3 조선 전기 명 사신이 가져온 도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영원, 『조선전기 도자 연구』(서울: 학연문화사, 1995);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4 『太宗實錄』 권34, 17년 7월 21일 갑술; 『世宗實錄』 권22, 5년 10월 15일 壬戌條; 『世宗實錄』 권44, 11년 5월 2일 丁未條.

5 ‘鐘’과 ‘鍾’은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해서 별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종은 종 모양을 연상시켜 붙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술잔의 기능을 생각해서 명명한 것일 수도 있다.

6 『世宗實錄』, 「五禮儀」, 賓禮 宴朝廷使儀.



도 2.
〈이도(井戶) 다완〉,
16세기, 높이 9.1cm, 구경 15.4cm,
京都 大徳寺 孤鑑庵

차를 담는 병인 다병은 일반적인 병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례의」에 따르면 연회 시 고려시대 다방의 후신인 司罇 제거 1인이 항상 다병을 받들고 다종에 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⁷ 이후 사용원 제거가 이 일을 도맡았는데 그만큼 다병은 각종 연회나 의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영조 때 기록에는 다병이 연간 6백에서 7백개 정도 진상되어 그 수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⁸

다관은 물이나 술, 차를 담는 용도로 사용된 주자와 그 기능과 형태를 같이 한다. 찻물을 끓이거나 끓인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단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다관 도1의 경우는 일반적인 다관과 그 형태가 달라 물이나 술을 담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오직 다례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다기의 가격은 1884년 공포된 『分院磁器貢所節目』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절목에는 당시 분원에서 진상한 자기의 품명과 각 공가가 기록되었다. 이 중 元進上貢價에는 茶鍾每件 價八錢, 왕실 하사용으로 별도로 진상하는 內出別燔器皿貢價에 茶罐每坐價一兩五錢 茶鍾每坐價七錢이라 되어 있다.⁹ 뚜껑을 수반한 복잡한 기형으로 인한 제작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 다관의 진상가가 다종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조선시대 자기 중 다완은 대일 도자교류의 산물로 소위 이도(井戶) 다완 도2처럼 일본에서 국보로 추앙될 만큼 공사간 무역이나 교류의 선물 등으로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수입

7 『世宗實錄』, 「五禮儀」, 賓禮 宴朝廷使儀.

8 『承政院日記』 648冊, 英祖 3年 10月 21日 癸卯, “李敏濟曰…臣曾任分院時 見茶瓶上 以石間朱書 燔進上茶瓶四字 臣問其由 則下吏爲茶瓶之一年進排者 多至六七百箇 而尙患不足者 蓋緣掖隸及廚院吏屬 中間偷竊買賣故也 自上 深軫此弊 分付分院 使之書此四字 庸作有標之御器 得免從中消融之患 分院之民 至今稱道聖德矣…上曰…分院茶瓶事 則予在私邸時事也 此何可以盛德言乎.”

9 高宗 31年(1894), 『分院磁器貢所節目』(규장각 古 4256-11), 置分院.

된 다완을 高麗茶碗이라 불렀는데, 『다회기』에 기록된 고려다완의 기록은 1506년 처음 등장하였다. 이들 다완의 명칭은 총체적으로 고려다완이었으며, 양식에 따라 이도(井戸)·하케메(刷毛目)·고기(吳器)·이라보(伊羅保)·고혼(御本)·고쇼마루(御所丸)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조선의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들로 16~17세기 사이의 『다회기』에 나타나고 있다.¹⁰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조선 다기의 일본 수입 경로는 정식 사절을 통해 조선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즉 書契를 지참한 공식 求請 및 求買 사절과 왜관에서 역관, 통사, 상인 등이 개인적으로 조달 혹은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졌다.¹¹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지방 영주들이 독자적으로 조선과 公私 교류 관계를 맺어 다양하게 수입하였다.

16세기까지 일본으로 수출된 조선도자는 대부분이 경상도, 전라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진해 두동리요지는 일본에서는 ‘熊川’가마라고 하여 주목해 온 곳으로,¹² 바탕의 흙색과 흐릿한 백토가 어우러진 투박한 회청사기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熊川 다완은 井戸 다완, 三島 다완 등과 함께 19세기 북학과 학자인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삼, 사백 년 전부터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전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³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어 다완무역은 중단되었다. 이후 1600년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경제교류 및 선진 문물 도입을 위한 국교회복 희망과 조선의 포로쇄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1609년 기유약조가 체결되고 국교가 회복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회복되고, 왜관이 다시 문을 열면서 일본은 왜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였다. 이 때 일본이 조선에 처음으로 요청한 것은 조선다기였다. 1611년 3월에 왜인이 書契를 지참하고 와서 ‘茶器甫兒’와 ‘瓦器’ 등의 제작을 요청하여 金海의 장인에게 만들게 한 기사가 그 예이다.¹⁴ 같은 해 4월에는 왜의 사절이 牛黃羊口·鷹子·陶器를 요청하는 서계를 가지고 와서, 예조에서 鷹子의 수만을 줄이고 나머지 물품을 경상도에서 그대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¹⁵

이러한 공무역 이외에도 왜관이 있었던 부산에서는 사무역·밀무역 등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제

10 鼎談, 「高麗茶碗づくりをめぐる」, 『高麗茶碗-論考と資料-』(京都: 川原書店, 2003), p. 67. 조선시대 일본으로 수입된 조선다완의 명칭은 일본 문헌에 기초한 것으로 기법과 장식, 문양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명명한 것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 참조. 김인규, 「아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다완론(朝鮮茶碗論)에 대한 고찰」, 『미술사와 시각문화』 8(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pp. 224-241.

11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研究』(大阪: 關西大學出版部, 1987), pp. 73-74.

12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389-392, 「陶器所·磁器所 問題와 分院時期의 對日貿易: 高興 雲岱里 窯址를 中心으로」, 『미술사논단』 20(한국미술연구소, 2005), pp. 49-79.

13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서울: 일지사, 2000), p. 220.

14 『邊例集要』卷之十二, 求買, “辛亥三月, 府使趙存性時, 倭人持書契陶鑄茶器甫兒瓦器等物, 使金海匠人陶給緣由, 馳啓.” 泉澄一은 甫兒는 甌로 瓦器는 鉢로 해석하고 있다. 泉澄一, 앞의 책, p. 72.

15 『邊例集要』卷之十二, 求買, “同四月(辛亥四月), 牛黃羊口鷹子陶器求買書契頭倭橘智種等, 賚來呈納は白乎等, 以同書契, 捧上上送爲白乎旅, 各樣物種, 報本道分定入給, 而其中鷹子段, 減數許買計科事啓.”

로 1681년 재고조사장부(新渡燒物御印判帳)에는 당시 압수된 다완 381점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사무역과 밀무역의 적발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최근에는 대마도 번주의 宗家文書에서 다기의 注文帳이 발견되었으며,¹⁷ 이를 통해 대마도 宗家が 江戸와 京都에서 도자기를 주문받아 부산에 있는 蕃土로 하여금 왜관에 전달하도록 하였음이 드러났다. 왜관에서는 하동·진주·양산·기장 등 주변의 사기장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소성하기도 하였으며,¹⁸ 동래부의 허락을 받아 조선에서 태토와 시목을 구입하였다.

일본인들이 선호한 조선 다완은 이도 다완처럼 조선식의 조방하고 자유분방한 양식이 있는가 하면, 17세기 중반 이후 吳器 다완처럼 일본인들의 취향을 그릇에 적용시킨 것도 있다. 즉 굽의 흙 장식이나 오목굽, 백토 장식 등을 가해서 만들어 정형화되거나 변형된 양식으로 변화되었다.¹⁹ 이후 왜관요는 점차 일본풍의 다완 주문과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본의 도토 구청에 대한 빈번한 거부가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마 蕃의 재정 악화, 일본내 일본 도자기의 급속한 확산 및 발전과 함께 숙종 43년(1717) 폐요되기에 이르렀다.²⁰

Ⅲ. 19세기 차 문화와 음다법

조선의 다례에 사용되는 차와 다기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조선과 중국의 차 문화 변천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차는 신라시대 당나라 사신이 차의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을 비롯한 남방에 심어 재배한 것이 그 시초였다.²¹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차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례로 자리하였다. 조선전기의 차

16 谷晃, 『御茶碗燒入目帳と新渡燒物御印判帳』, 『高麗茶碗—論考と資料—』(京都: 川原書店, 2003), p. 264.

17 森達也, 「일본에서 출토된 한국 토기·도자기」, 『東北亞陶磁交流展』(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 pp. 277-280. 본문의 각주 90)에서 재인용.

18 조선인 사기장의 파견은 일본의 구청에 의한 것으로, 6~10개월에 걸쳐 주문한 다완의 제작이 끝나면 조선 장인들은 원래의 가마로 돌아갔다. 파견된 장인의 수는 5~6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해마다 이러한 구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의 조정에서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무엇보다도 선진 기술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방병선, 「조선 후기 도자의 대외교섭」,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涉』(서울: 예경, 2007), pp. 253-284.

19 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吳器茶碗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미술사연구회, 2010), pp. 87-108.

20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연구」, 『美術史學研究』 232(韓國美術史學會, 2001), pp. 131-155; 방병선, 앞의 책(2007), pp. 253-284.

21 李晔光, 1614, 『芝峯類說』 卷十九, 植物 藥, “古人所謂雨前茶。蓋以三月中穀雨前茶 初生嫩葉爲佳。或言正月中雨水前也 李齊賢詩香清曾摘火前春。按火前者 採造於寒食禁火前也。新羅興德王時 使臣自唐還。得茶子來 命植智異山。

문화는 성리학적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국가적인 각종 제례 등에서 의식의 한 절차와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사대부들 역시 契畵 등에서 정신수양을 위한 방편으로 차를 음미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특히 정조 이후 19세기에는 차는 의식이나 수양의 차원에서 벗어나 시문서화의 감상과 더불어 행해지는 문화적 행위로 자리하였다. 문인 지식인들과 중인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화사족들은 골동완상과 음다, 향연 등을 문화적 특권으로 여김으로써 차 문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²² 이들은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림과 골동을 감상하며 향을 피우고 거문고를 연주하고 차를 마시는 여유로움을 즐기는 것을 차별화된 문화적 행위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차와 음다법에 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의례집을 비롯해서 사대부의 문집과 조선 후기 실학자와 북학파 학자들의 백과사전적 서적에 남아 있다. 18세기 기록인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에 의하면 “이 茶飰 것은 맨 처음 생겼을 때는 물에 끓여서 먹게 되었다. 《家禮》에서 쓰는 點茶는 차를 가루로 만들어서 잔속에다 넣고 끓는 물로 죽인 다음, 술[筯]로 휘휘 젓는 것인데 지금 일본 茶가 모두 이와 같다. 丁公言과 蔡君謨가 기이한 계교를 내서 茶餅을 만들어 朝廷에 바치자 드디어 다 같이 만들어 먹는 풍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조선에서는 18세기까지 점다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²³

이후 19세기 들어 다법이 바뀌어 중국과 마찬가지로 泡茶法이 유행하고 이에 따라 다병과 다완, 다관도 형태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차의 종류는 오미자차와 작설차가 주로 애용되었고 차의 형태는 茶餅, 즉 떡차의 형태로 선물로도 주고받았다.²⁴ 특히 북학파가 유행하고 중화풍 의상이 주를 이루던 19세기에는 중국차인 승설·백로차·용단승설·무이차·강남설차 등과 일본의 후지산차 등을 애용한 기록이 있어 차 역시 중화풍 풍미가 주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⁵ 이는 북학파와 柳得恭(1749~1807)의 기록처럼 품질 좋은 조선의 토산차가 없어 雀舌과 생강·귤로 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²⁶

今南方諸郡產茶。乃其時所種云。”

22 조선 후기 고동서화 완상 취미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 참조. 강명관, 「조선 후기 경화사족과 고동서화 취미」, 『동양한문학연구』 12(동양한문학회, 1998); 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서울: 일지사, 1995); 장진성, 「조선후기 고동서화 수집열기의 성격: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사회평론, 2004); 최공호, 「한국공예감식의 변천—문방청완의 향유와 眼法」, 『미술사학』 20(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황정연, 「조선시대 서화 수장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홍선표, 「조선후기 회화에호 풍조와 감평활동」, 『미술사논단』 5(한국미술연구소, 1997).

23 李瀾, 『星湖僿說』 제6권, 萬物門, 茶食.

24 申緯, 『警修堂全藁冊』 十七, 北禪院續稿一 辛卯二月 至五月. 이 시에서 초의선사가 신위에게 떡차를 선물로 보내는 구절이 등장한다.

25 李尙迪, 『恩誦堂集』.

26 柳得恭, 『京都雜誌』 권1, 風俗 茶煙, “茶無土產 質於燕市 或代以雀舌薑橘 官附熬糯米沈水亦謂之茶 近俗或用白頭山杉茅.”

한편 19세기 들어 차에 대한 관찬 기사는 많지 않으나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 자하 신위 같은 당대의 거유들이 차의 감흥을 시로 읊긴 茶詩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 사대부 사이에서 차가 널리 향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 뿐 아니라 승려로 동시대 이들과 교유한 草衣禪師(1786~1866, 속명 張意恂)는 우리나라의 차 중흥을 이룩한 인물로 당시 중국의 茶書를 탐독하고 난 후 『茶神傳』과 『東茶頌』을 저술하여 다도의 맛을 설명하기도 하였다.²⁷ 그는 찻잔은 설백과 남백색의 것을 최고로 여겼다.²⁸

또한 중국문물의 광범위한 유입과 복학 풍조에 힘입어 중국차를 마시고 중국산 골동과 다호를 자랑하는 것이 사대부와 중인들에게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전반 역관 중인 출신인 趙秀三(1762~1849)은 서울의 한 노인이 차를 마시며 골동을 감상하는 장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산 자기에 대한 폭넓은 호상을 보여준다.²⁹ 19세기 朴準源(1739~1807)이 중국 청자다관을 읊은 것이나,³⁰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일본의 후지산 茶와 卵色 다호를 품평한 李尙迪(1804~1865)의 시는 당시 중국과 일본 다기에 대한 조선 사대부의 완상 태도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³¹

참고적으로 조선의 차와 음다법은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서 차는 단순한 음용물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주된 稅源이자 무역품으로 차의 생산과 공급에는 많은 이익이 따랐다. 정약용은 『經世遺表』에서 중국의 시대별 차의 종류와 산지, 차 전매제도에 대해 서술하여 당시 중국 차에 대한 관심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³² 李圭景(1788~?)은 중국 차 가운데 가장 질이 낮은 黃茶만이 조선에 유입되었고 그나마 사대부와 부호만이 이를 사용하여 중국보다 차의 애호가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³³ 또한 중국 차의 역사와 전매제도, 다서 등과 일본의 음다 풍습도 기록하였다.³⁴ 徐有榘

27 윤병상 편역, 『茶道古典』(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28 草衣禪師, 『茶神傳』, 茶盞, “盞以雪白者爲上 藍白者不損茶色 次之.”

29 趙秀三, 『秋齋集』 권7, 詩 紀異, “古董老子 漢城孫老 本富翁也 性好古董而無藻識 人多售贗品騙重直 以故家竟懸磬翁猶不覺見欺 獨坐一室 磨古墨於端硯嗅之 俞佳茗於漢窑啜之曰 此足以遣飢寒 隣人有饋早膳者 輒麾去之曰我不受衆人惠也.”(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p. 569.

30 朴準源, 1816, 『錦石集』 卷之八, “靑甕茶罐銘 是罐也不宜雀舌五名 惟眞珠桂花之茶可烹 是罐也不宜漢陽衆泉 惟金陵浙江之水可煎 是罐也不宜土火鉢 惟發硯博山之爐可張 是罐也不宜木梢櫛 惟獸形烏彩之炭可爇 翠蕤兮其文之章 而紫玉兮其質之剛 斯至寶兮燕物 胡爲乎寒士之室.”

31 李尙迪, 1848, 『恩誦堂集』 續集詩卷二,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皆日本物也 徐市祠前野草花。三山何處有仙家 可憐秦帝求靈藥 爭似先生一椀茶 卵色壺壺天下一 本人稱製器之精良者日天下一 手煎新茗滌煩襟 松風活火深深夜 似聽殘潮海上音。”

32 丁若鏞, 1817, 『經世遺表』 권11, 地官修制賦貢制 五.

3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茶茶辨證說 “今燕都茶品之藉藉盛行者。普洱茶爲第一。白毫茶爲第二。靑茶爲第三。黃茶爲第四。而黃茶每多流入我東。爲日用所飲。然惟在士大夫家及富豪者所用。而不如中原之以爲恒用也。東之無癖於茶。又可知也。然東人飲茶。亦自新羅爲始。《東國通鑑》。新羅興德王三年戊申。卽唐文宗太和二年也。遣大廉如唐。得茶子來。王命植于智異山。崔孤雲《桂苑筆耕·謝探請料錢狀》。今有本國使船過海。某欲買茶藥。寄附家信云云。則足可爲證者。宋孫穆《雞林類事·方言》。高麗人稱茶曰茶。則高麗人亦飲茶矣。今茶之爲名者。出於嶺南竹田。

(1764~1845) 역시 중국 차의 종류와 산지를 비롯해서 조선 차의 특성, 차 도구, 차 마시는 법 등 다양한 문헌을 근거로 저서에 남겼다.³⁵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차의 본향과 같은 곳으로 隋唐 이전에는 음식으로 차를 마셨으나, 唐宋代에는 찻잔에 찻잎을 갈아 놓고 물을 부어 저어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다. 明清代에는 차 잎을 끓여 우려내어 마시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이처럼 차를 만들거나 마시는 것이 변화함에 따라 당연히 다기도 변화하였다. 唐代까지는 찻잎을 갈아 탕기에 넣고 같이 끓이거나 끓는 물을 부어 마시는 烹茶法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찻잎을 가는 茶碾과 다잔·다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송대의 경우 당대와는 달리 차 마시는 방식이 點茶로 바뀌었다. 찻물을 별도로 끓이고 이를 다병에 붓고, 찻가루인 말차를 마치 점찍듯이 찻수저로 다완에 옮긴 후 끓인 물을 붓고 잘 섞어 마시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다병과 탕관, 찻수저 등이 새로운 다기로 사용되었다. 찻잎의 양이나 물의 양, 다완^{도3}에



도 3.
建窯〈天目茶碗〉,
12~13세기, 높이 5.3cm, 구경 15cm,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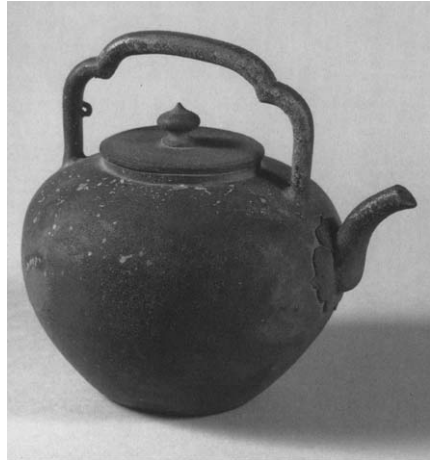
名以竹露茶。出於密陽府衙後山麓產茶。名密城茶。嶠南康津縣。有萬佛寺出茶。丁茶山鏞謫居時。教以蒸焙爲團。作小餅子。名萬佛茶而已。他無所聞。東人之飲茶欲消滯也。”

3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茶茶辨證說, “日本人亦有所記。可考也。日本良安尚順(和圖會)。凡投茶於器有序。先茶後湯。謂之下投。湯半下茶。復以湯滿者。謂之中投。先湯後茶。謂之上投。春秋中投。夏上投。冬下投。茶之爲書者。陸翁 茶經 蔡襄 茶錄 子安 試茶錄 宋徽宗 大觀茶論 熊蕃 北苑茶錄 北苑別錄 黃儒 品茶要錄 沈括 本朝茶法 張又新 煎茶水記 蘇軾 十六湯品 葉清臣 述煮茶小品 溫庭筠採茶錄 唐寅 鬪茶記 徐獻忠 水品 田藝蘅 煮泉小品 顧元慶 茶譜 馮時可 茶錄 許次紆 茶疏 聞龍 茶箋 羅廩 茶解 熊明遇 羅芥茶記 憑可賓 芥茶箋 陸樹聲 茶寮記 陳鑑 虎丘茶經 冒巢民 芥茶彙抄 茶爲書者甚多。今何必強記若鬪茶品水者乎。”

35 徐有槩, 『林園十六志』, 「怡雲志」卷1, 茶供, 「晚學志」卷5, 雜植 茶.



도 4. 벽화, 〈侍女準茶圖〉, 1276년, 159×146cm,
산서성 屯留縣 康庄村 2호 원묘 출토, 長治市博物館



도 5. 〈宜沙提梁壺〉, 1533년, 강소성 남경 太監吳經墓 출토,
남경시박물관

따라 차 맛이 달랐으므로 누가 차를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겨룰 수 있어 鬪茶라는 이름이 붙었다. 원대 역시 점다법이 유행하였다. 1276년의 원대 벽화^{도4}에도 왼손으로 치켜 든 다완에 물을 부은 후 오른 손으로 찻솔로 차를 젓는 점다법의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었다.³⁶ 이처럼 원대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명대 들어 차 제법과 음다법에 일대 변화가 발생하였다.

洪武 24년 明太祖가 福建 建安의 團茶제작과 進貢을 금지시키면서 음다법은 일대 혁신이 발생하였다. 즉 茶葉을 다양하게 가공하여 가루로 만들어 茶壺에 넣고, 물을 끓여 이를 차가 담긴 다호에 부어 우려낸 후 찻물을 茶杯에 부어 마시는 음용법인 泡茶法이 유행하였다. 이에 따라 명대 들어 커다란 茶甌나 다완보다는 용량이 작은 茶鍾과 茶盃가 음다용으로 사용되었다. 당송대처럼 대형의 다병보다는 소형의 다호가 주종을 이루게 된 것이다. 청대 들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다호가 사용되었다.³⁷ 청대 다호는 손잡이가 몸체 위에 달린 提梁壺^{도5}나 주구 반대편에 달린 작은 주자 형식이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19세기 조선에서는 포차법이란 음다법과 새로운 중국차가 유입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과 문화가 형성되면서 황수형 다관과 같은 전용 다도구 제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36 元至元13년(1276), 〈侍女準茶圖〉, 159×146cm, 山西省 屯留縣 康庄村 2호 원묘 출토, 長治市博物館 소장.

37 廖寶秀, 『歷代茶器述要』, 『也可以清心~茶器, 茶事, 茶畫特展』(台北: 故宮博物院, 1992), pp. 6-21.

IV. 19세기 白磁茶罐의 종류와 특징

19세기 제작된 백자 다기들은 전통적인 양식 뿐 아니라 중화풍 의장을 응용한 매우 이례적인 양식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18세기 후반 정조 이후 수요층의 확대와 중화풍 의장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³⁸ 당시 많은 궁중 의식에 중국도자가 사용되었고, 완상의 대상이 된 데는 왕실이 선두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和柔翁主(1740~1777) 묘 출토품 중에 중국 다완^{도6}이 포함되었음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³⁹ 현존하는 19세기 다완 가운데 중국 덕화요풍의 양각 매화배가 등장한다든지 각형의 병이나 다관 역시 특이한 형태가 제작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고려된다.

본고의 주제인 조선시대 백자 다관의 경우 손잡이의 위치와 형태, 몸체의 형태, 문양 장식의 유무와 문양 종류에 따라 몇 가지로 형식을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손잡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관 몸체의 상부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도7}으로 上手形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상수형 다관



도 6. 〈靑白磁有蓋蓮瓣文碗〉, 和柔翁主(1740~1777) 묘 출토, 높이 10cm, 국립고궁박물관



도 7. 〈백자 다관〉, 19세기, 높이 19.7cm, 국립중앙박물관

38 방병선, 앞의 책(2000), pp. 129-133.

39 和柔翁主는 英祖와 貴人 趙氏 사이에서 태어난 열 번째 왕주로 14세 때인 1774년(영조 29)에 黃仁黠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화유옹주 묘는 원래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6번지에 있었으나, 1991년 6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작동 산28-6번지로 이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옥제 石榴簪, 금은제 석류잠, 청화백자 연판문소완, 황유장미문병, 청화백자합, 무녀 鎭製 등잔대, 은제 瓜形酒煎子, 옥제 耳杯 등이 있다. 현재 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도 8. 〈五彩龍鳳文提梁壺〉, 명 만력(1573~1620), 높이 22.3cm, 상해박물관



도 9. 〈백자 청화 모란문 다관〉, 19세기, 높이 17.6cm, 국립중앙박물관

은 중국에서 提梁壺라고 부르는 형태로, 오늘날 주전자 혹은 주자의 기본적인 기형으로 유물도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손잡이는 위로 커다란 아치를 이루면서 뚜껑의 홈 바로 옆에 부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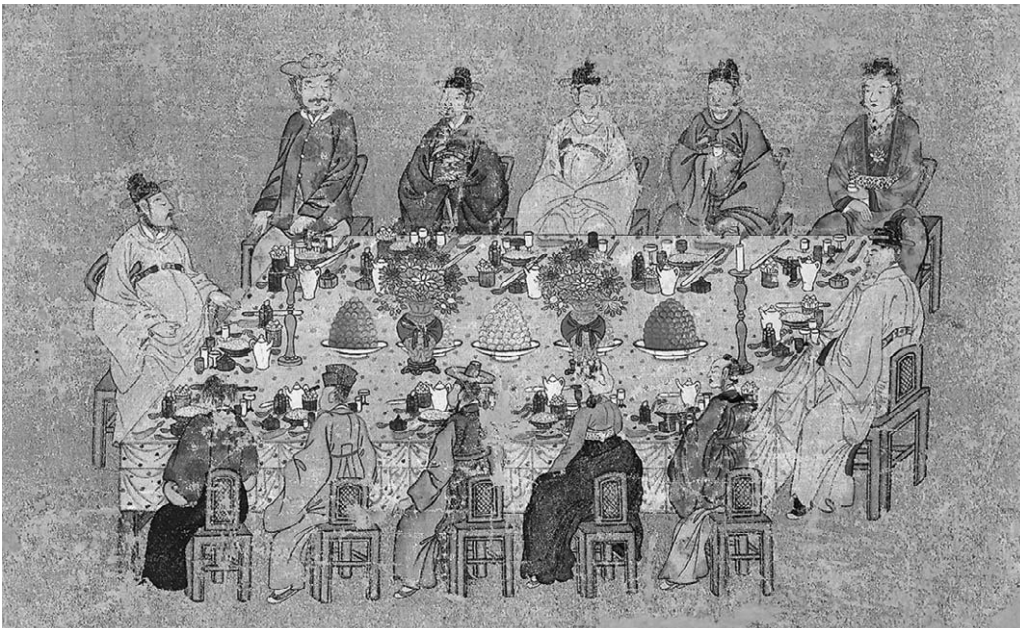
이 다관의 원형은 중국 명대 다호에서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다. 명대 다관은 손잡이가 몸체에 부착된 면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후 직각으로 꺾여 수평을 이루는 경우 도8도 있으나 조선에서는 대개 아치형을 이룬다. 다만 청대에 들어서면 중국의 상수형 다관은 몸체가 작아지고 납작한 형태가 많다. 따라서 조선 19세기 상수형의 다관은 동시기 청대보다는 명대 다관에 더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잡이의 형태는 원형이 대부분이지만 가닥을 만들어 꼬아서 마치 넝쿨과 같은 형태도 있으며 각이 진 것도 있다. 몸체는 원형이 대부분이나 상하, 좌우로 약간 납작해진 타원형도 있다. 주구는 원형 혹은 각형을 이루며 직선형과 S자형의 두 가지로 몸체 가운데 혹은 하반부에 위치하였다. 납작한 타원형의 몸체인 경우 주구는 가운데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청화백자 다관에 사용된 문양 장식은 모란문 도9이나 당초문 등이 주를 이루고 몸체와 뚜껑, 손잡이 등에 장식되었다. 뚜껑 위 손잡이는 원형이 가장 많고 몸체 전체를 마치 복숭아로 형상화하기 위한 꼭지와 같은 형태도 제법 남아 있다. 중국의 경우 상수형 다관은 명 후반 이후 청대에 걸쳐 청화백자와 오채, 분채자기 등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청대에는 강소성 의흥요에서 많은 다관이 제작되었으며, 대부분 상수형 다관들이다. 동시기 다도 관련 회화 자료에 등장하는 다호나 다관 역시 대부분 이 형태를 띠고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손잡이가 몸체 측면, 주구 반대편에 부착된 後手形이다. 고려시대의 경우 대부분 주자는 후수형으로 몸체는 원형·표형·각형·타원형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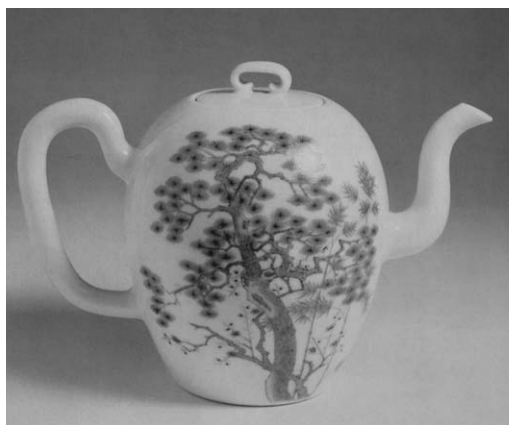


도 10.
〈백자 다반〉,
19세기, 높이 27.8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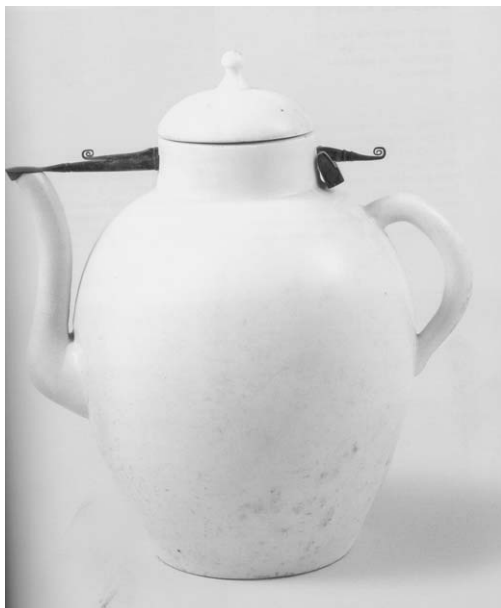


도 11. 안중식, 〈한일통상 기념 연회도〉, 1883년, 지본채색, 35.5×53.9cm, 송실대 부속 한국기독교박물관

의 제작량은 급감하여 남아 있는 작품이 적은 편이다. 전기의 경우 호림박물관 소장 백자 주자처럼 옥 호춘 형태의 병 몸체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는 한동안 잘 보이지 않다가 19세기 들어 입호형의 기다란 몸체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 도10 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1883년 안중식이 그린 한일통상기념연회도 도11 에서도 확인된다. 이 그림에는 호형의 몸체에 주구 반대편에



도 12. <두채다관>, 청 옹정(1723~1735), 높이 19.3cm, 런던 Percival David Foundation



도 13. <백자 약주자>, 19세기, 높이 28cm, 한독의약박물관

고리형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백자 다관이 참석자 개인마다 식탁 위에 놓여있으며 몸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이미 청대 강희제 이후 이러한 형식의 다관 도 12 이 청화백자와 분채 등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선백자 다관 중에는 구연부와 뚜껑 양쪽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기다란 자물쇠를 넣어 잠금 장치를 하여 뚜껑을 쉽게 열 수 없게 만든 약주자 도 13 의 기능을 한 것도 있다. 동 시기 청에서는 후수형 다관의 크기가 작고 원형이나 각형의 몸체가 많은 편으로 조선 다관과 같은 형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다관 도 1 처럼 손잡이가 몸체 측면에 달린 횡수형 다관이다. 이 다관은 19세기 백자의 특징인 청백색의 유색을 지니고 있으며, 뚜껑은 첩화된 이룡으로 장식되어 있다. 물레에서 성형한 둥글납작한 모양의 편안한 몸체와 달리 注口는 작고 날렵한 형태이며 주구와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 측면에 부착된 손잡이 역시 가늘고 꼬트머리는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또한 차를 따를 때 뚜껑이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은 입구 안에 폭 들어앉게 했으며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차를 따를 수 있도록 주구의 위치는 중간 이하로 낮다. 특히 뚜껑 손잡이를 비스듬히 머리를 쳐든 도롱뇽 모양으로 만들어 첩화기법으로 부착한 것은 영락없는 중국풍이다. 그러나 횡수형 다관은 동 시기 중국에서는 거의 발견된 예가 없다.

이상과 같은 다관들은 백자 뿐 아니라 흑유나 도기로도 제작되었고, 분원과 지방의 여러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시대 차 그림 속에서도 다관이 발견되는데, 이들 다관은 하나같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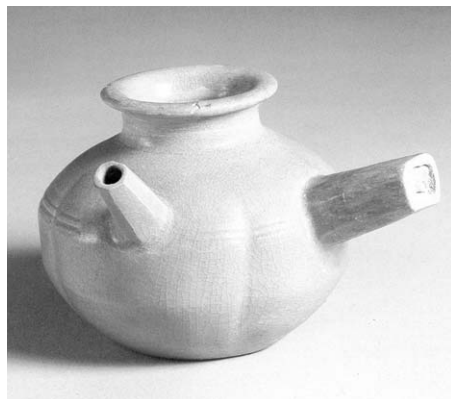
로 위에서 볼로 대우고 있어 백자 다관으로 보기는 어렵다.⁴⁰ 민화의 경우 중국과 조선백자 다관으로 추정되는 그림들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상수형의 일반적인 다관들과 후수형 다관들로, 횡수형 다관은 발견하기 어렵다.

V. 横手形 白磁茶罐의 기원

다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다관으로 돌아가서 18세기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다관은 발견된 예가 없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먼저 중국의 경우 횡수형 다관은 이미 당대 월주요와 장사요에서 제작된 적이 있는데 藍綠釉横柄壺 도14 를 그 시초로 들 수 있다.⁴¹ 1978년 장사요지에서 출토된 이 호는 뚜껑과 위로 길쭉한 타원형의 몸체가 세트를 이루고 있다. 다각형의 주구를 지니고 있고, 주구 우측 90도 되는 어깨 부분에 막대기 모양의 다각형의 긴 손잡이가 달려있다. 마치 조선시대 옹기 약탕기와 같은 형태다. 또한 장사요에서는 백자 다관과 유사하게 납작한 타원형의 횡병 호 도15 도 제작되었다. 이러한 횡병호들은 이후 장사요가 생산 활동을 멈추면서 광동성이나 복건성 일대에서 제작되지만, 크게 유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건성 박물관에 소장된 송대 복건성 천주



도 14. 〈藍綠釉横柄壺〉, 당 9세기, 높이 16cm, 長沙市博物館



도 15. 〈白釉横柄壺〉, 당 9세기, 높이 7.8cm, 揚州市博物館

40 차 그림 속의 다기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 참조. 이원복, 「朝鮮後期の茶畫: 차 그림의 대세와 盛行要因을 中心으로」, 『東垣學術論文集』 14집(2013), pp. 392-412.

41 『中國陶瓷全集』 6, 唐·五代(臺北: 錦繡出版, 1999), p. 55.



도 16. 〈橫柄壺〉, 宋 12~13세기, 福建省 泉州 晉江 磁灶窯 출토, 福建省博物館

晉江 磁灶窯 출토 橫柄壺 도 16 가 흔치 않은 예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후 횡수형 다관은 중국 도자에서 그다지 유행하지 못한 채, 원대 이후로는 황실 다기로는 사용되지 않고 복건성 민요 등지에서 근근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에서 이러한 다관은 ‘구스(急須)’로 부르는 횡수형 다화로 중국에서 유입되어 에도시대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일본어 ‘구스’의 어원을 보면 중국 복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횡수형 다관인 急須는 중국남부 복건어로는 ‘킵슈’로 부르는 그릇과

발음과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복건에서 ‘킵슈’는 차를 우려내는 도구가 아니고 술과 물을 데우는 탕판과 같은 도구였다. 江戸時代 일본에서는 이러한 橫手急須를 ‘急燒’로 쓰고 ‘기비쇼(きびしょう)’로 읽었다. ‘急’의 字 발음은 중국어로 ‘큐’이나 옛날에는 ‘키푸’로 발음되었다. ‘燒’는 ‘쇼’이고 ‘須’를 ‘스’로 발음하는 것은 誤音으로 중국어에서는 ‘슈’가 된다. 결국 ‘急須’의 文字는 ‘킵슈’를 충실히 표현하고자 했던 데서 온 것이다.⁴² 조선시대 19세기 문헌에도 急須가 등장한다. 서유구는 중국에서는 급수를 동으로 제작한 주기로 술을 급하게 데울 때 사용하였다고 하였다.⁴³ 이러한 용도와 용어가 일본으로 건너가 특별한 다기 형태를 부르는 것으로 전환된 것이다.

다음 일본에서 다관이 상용되게 된 배경에는 역시 차 문화의 성행이 있었다. 무로마치 시대 이후 일본의 다회에서는 조선과 중국의 다기 등이 즐겨 사용되었고 에도시대 들어서도 백자와 분청사기계 조질 다완과 중국의 宜興窯 다기 등도 사용되었지만, 점차 일본 국내 생산 다기가 주를 이루었음은 출토 품 등을 통해 고찰되었다.⁴⁴ 당시 중국 다기의 전래는 중국 다례와 승려의 유입과 함께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7세기 후반 나가사키(長崎)에는 중국 淸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 사원이 창건되어, 사원의 행사와 관습에 따라 음다법도 동시대 중국에서 행해지던 泡茶法이 전래되어 행해졌으며 다기도 이에 맞게 생산되었다. 당시 長崎에 이주해 온 중국인들은 대륙에 있을 때부터 다례에 친숙해서 長崎의 寺院・唐

42 小學館版의 『古語大辭典』에는 “킵슈【急燒】…「急燒」의 中國 福建省의 발음인 ‘기비쇼’의 와전이다. 急須와 急燒와의 關係는 없다.”라고 되어 있다. 鈴木裕子, 「遺跡出土の煎茶道具-東日本」, 『研究紀要』第16号(京都: 野村美術館, 2007), pp. 145-147.

43 徐有渠, 『林園十六志』, 「怡雲志」卷1, 性養器具, “急須 吳人呼煖酒器爲急須 以其應急而用也 以銅爲之.”

44 鈴木裕子, 「遺跡出土の煎茶道具-東日本」, 『研究紀要』第16号(京都: 野村美術館, 2007), pp. 145-147.



도 17. 『尾張名所図会』 전편 6권 知多郡

人·町人 등에게 포다벌 보급을 한 탓에 시내의 町屋遺跡(築町遺跡櫻町遺跡)에서 여러 다도구가 출토되었다.⁴⁵

본고의 주제인 조선백자 다관과 유사한 急須로 불리는 다도구가 본격적으로 일본 다례에서 사용된 것은 다례와 다기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한 賣茶翁高遊外(1675~1763)의 활약 덕분에 고찰되었다. 賣茶翁이 사용한 南蛮締急須는 중국의 다관을 모델로 이를 일본식으로 변안한 것으로 오늘날의 횡수형 다관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었다.⁴⁶ 즉 중국의 횡수형 다관과 같은 기물이 일본에 전래되고 이후 일본에서 이를 찾그릇 전용인 다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태를 축소·변형시켜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산 횡수형 다관인 急須는 에도시대 후반인 18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전통 도기 생산지인 도코나메(常滑)에서 다도구의 하나로 본격 생산되었다.⁴⁷ 天保 15년(弘化 원년, 1844)에 간행된 『尾張名所図会』는 江戸시대 말기부터 明治시대 초기에 걸쳐 尾張國의 명소·풍속·물산 등을 광범위하게 수록한 地誌다. 卷之六 知多郡의 陶甕 관련 삽화 도17를 보면 이 지역의 유명한 도자기 가마인 도코나

45 稲垣正宏, 「17世紀の遺跡から出土する煎茶道具」, 『周縁の文化交渉學シリーズ1 東アジアの茶飲文化と茶業』(大阪: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点, 2011), pp. 201-208.

46 稲垣正宏, 앞의 논문, pp. 201-208.

47 中野和清久, 「常滑の急須 その成立期の様相」, 『常滑市民俗資料館 平成14年度特別展圖録』(2002), pp. 3-14.



도 18.
〈白磁雙鳳文急須〉,
높이 9.3cm, 구경 4.5cm,
일본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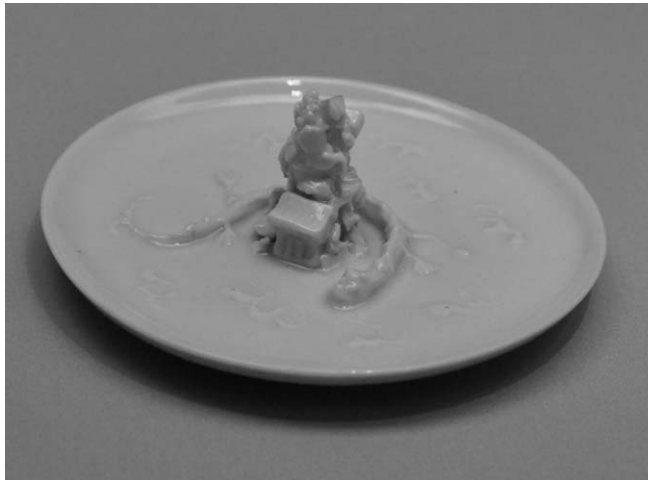
메가마(常滑燒)에서 제작된 작은 횡수형 다관들이 보인다.⁴⁸ 이들 그릇은 대소 모두 옹기류의 急須, 다기, 주기 등으로 당시 호사가들의 수요에 부응하였다. 책에는 책이 쓰이기 100년 이전부터 急須와 다기, 주기 등도 옹기로 구워 내었다고 기술하였다. 책 속의 삽도에는 蕙葺小屋 안에 두 명의 남자가 물레를 돌려 急須와 술병을 만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횡수형 다관인 急須는 天保 15년(1844)의 100년 전인 延享 원년(1744) 경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京都에서는 이후 19세기에 아오끼 모쿠베이(青木木米, 1767~1833)와 같은 도공들에 의해 백자 도¹⁸와 상회자기 등의 다양한 急須가 제작되었다.⁴⁹ 이들 急須의 기본 형태는 약간 납작한 원형의 몸체에 나팔꽃처럼 벌어진 원통형 손잡이, 직사형의 원통형 주구, 몸체 안에 홈을 파고 그 안에 뚜껑을 들어가게 하는 등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횡수형 다관과 같다.

그러면 이러한 急須, 즉 횡수형 다관은 언제 조선으로 유입되었을까. 이를 입증하는 확실한 문헌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서유구의 기록에 急須가 등장하지만 이는 다기가 아니라 주기로 서술하고 있어서 횡수형 다관과는 연관짓기 어렵다.⁵⁰ 대체적으로 일본 자기는 조선 후기 들어 유입이 시작되었고, 시기가 지날수록 그 수량과 종류는 증가하였다. 문헌에 등장하는 그릇의 종류는 상회

48 前田榮作・水野鑛造, 『尾張名所都會 解き散歩』(名古屋: 風媒社, 2006). 삽화 안의 그릇은 위낙 작아 확대가 요구되지만 다관의 옆으로 달린 손잡이는 희미하게 발견된다.

49 상기 일본 急須 관련 부분은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도록(2014)에 실은 필자의 원고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50 徐有渠, 『林園十六志』, 『怡雲志』 卷1, 性養器具, “急須 吳人呼煖酒器爲急須 以其應急而用也 以銅爲之.”



도 19.
〈백자 향꽃이〉, 19세기,
높이 3.6cm, 지름 10.5cm,
국립중앙박물관

자기와 청화백자로 추정되며 대부분 화병과 완, 접시 등이다. 자기 가운데는 1704년 일본 이마리다완이 주문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⁵¹ 이 밖에 다관이나 다호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 양식 비교를 통해 시기를 추론하기 위해 현존하는 일본의 횡수형 다관인 急須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횡수형 다관과 유사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횡수형 다관의 특징은 뚜껑의 손잡이가 용을 형상화하여 별도로 만들어 첩화하였고, 뚜껑이 몸체 홈 안으로 움푹 들어 있으며, 손잡이는 속이 빈 원통형으로 나팔꽃처럼 벌어져 있다. 주구는 원통형으로 직사선으로 뻗어 있다. 뚜껑이 몸체 안으로 들어가고 손잡이가 나팔형을 이루는 것은 일본의 19세기 急須 도 18 가운데 여러 점이 있다. 반면에 螭龍처럼 동물 형상을 한 뚜껑 손잡이는 일본에서는 발견하기 어렵고, 중국의 홍자사 다관에서 보인다. 또한 첩화 형식으로 다양한 상형 장식을 응용한 예는 대개 19세기 이후 조선 백자에 등장한다. 다관은 아니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향꽃이 도 19와 일부 청화백자연적에 이러한 첩화 螭龍과 유사한 조각 장식이 있다. 이러한 첩화 장식은 중국도자에 대한 선망과 중화풍 양식의 유행에 따른 것으로 차 문화의 유행과도 궤를 같이 한다. 특히 향꽃이는 향을 피우는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9세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화사족과 중인 계층들이 焚香의 분위기에서 飲茶와 함께 고동서화 완상취미를 즐기기 위해 다관과 더불어 주문했을 백자로 추정된다. 두 백자의 청백색 유색과 이렇 첩화 장식이 유사하고 시대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이렇 은 중국 도자에는 문양과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되었고 다관의 경우에도 몸체 손잡이와 뚜껑 손잡이로 응용되었지만 횡수형 다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51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미술사논단』 29(한국미술연구소, 2009), pp. 197-229.

결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 횡수형 다관의 조형은 기본적인 몸체의 크기와 형태는 일본의 急須에서 따온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이룡을 형상화한 뚜껑의 손잡이는 중국풍의 장식이다. 이를 보면 조선백자 횡수형 다관은 일본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더 근원을 따지면 중국에서 기원하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기형의 원조는 장사요 횡병호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다도구로 본격적으로 사용한 일본의 18세기 急須가 백자 다관의 원형에 더 가깝다. 여기에 시대 양식에 따라 첩화장식의 뚜껑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년작이 없고 확실한 전래 시기와 과정을 전하는 문헌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전래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청백색 유색과 19세기 일본에서 유사한 횡수형 다관이 제작된 점, 중화풍의 첩화 장식 등과 19세기 이후 조선 지식인 사이 유행했던 고동서화 감상과 차 문화 유행 등을 고려할 때 19세기로 편년지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조선시대는 다례가 중시되었고 이에 따라 백자부터 분청사기와 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기가 제작되어 오례와 일상 다례에 사용되었다. 다기의 종류인 다완·다배·다잔·다관·다종·다연 등은 기능에 맞게 제작되어 시대 양식을 보이며 변천하였다. 특히 조선 다완은 공사무역을 통해 일본에 많이 전래되었고 일본 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19세기 들어 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중국 차의 유입과 차 문화의 유행이 茶詩와 여러 백과사전적 문헌에 기록되었다. 또한 분향과 음다 풍습, 고동서화 완상 취미의 유행 속에 차문화는 서울을 중심으로 사대부와 중인계층에 널리 퍼졌으며 이는 다양한 다기들이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차 완상과 조선에 유입된 일본 다기의 영향으로 새로운 기형이 등장하였으며 이 가운데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횡수형 다관도 포함된다.

19세기 제작된 조선백자 다관은 손잡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손잡이가 몸체의 측면에 있는 횡수형과 상부에 있는 상수형, 주구의 반대편에 있는 후수형으로 이 중 상수형과 후수형은 이전부터 제작되거나 중국의 영향으로 조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손잡이가 몸체 측면에 부착되어 주구와 직각을 이루는 백자 횡수형 다관은 조선시대 18세기까지는 제작된 예가 없었다. 중국의 경우 횡수형 다관은 당대 장사요의 탕관인 횡병호와 유사하여 이를 기원으로 보았다. 이후 중국에서는 당송대 월주요와 복건성 민요에서 제작되었지만 명청대 들어서는 크게 유행하지 못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중국 복건 지역에서 횡수형 다관이 전해져 일본식의 작은 몸체의 다관으로 탈바꿈하였다. 일본 횡수형 다관의 이름인 急須는 원래 술을 데우는 용도의 銅器로 중국과 조선 문헌에 등장하며 ‘규스’라는 발음은 복건어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일본의 賣茶翁高遊外(1675~1763)가 急須를 횡수형 다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형태를 변환시켰으며 19세기 이후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조형적 특징인 이룡 장식의 뚜껑 손잡이는 백자 향꽃이에서도 보이며 이는 향을 피우고 차를 음미하며 골동완상을 하던 당시 사대부 계층의 수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처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 다관은 19세기 차 문화와 중화풍 의장의 유행, 일본 도자의 유입 등을 배경으로 조선 도공이 창안해 낸 조선과 중국, 일본의 양식이 혼재된 조선의 다기였던 것이다.

주제어: 조선백자, 다관, 19세기, 急須, 다례, 횡수형 다관, 다기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邊例集要』

『分院磁器貢所節目』

朴準源, 『錦石集』

徐有渠, 『林園十六志』

申緯, 『警修堂全藁冊』

李晬光, 『芝峯類說』

李尙迪, 『恩誦堂集』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瀾, 『星湖僊說』

丁若鏞, 『經世遺表』

趙秀三, 『秋齋集』

草衣, 『茶神傳』, 『東茶頌』

강명관, 「조선후기 경화사족과 고동서화 취미」, 『동양한문학회연구』 12, 동양한문학회, 1998.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_____, 「陶器所·磁器所 問題와 分院時期의 對日貿易: 高興 雲岱里 窯址를 中心으로」, 『미술사는 단』 20, 한국미술연구소, 2005.

김인규, 「아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다완론(朝鮮茶碗論)에 대한 고찰」, 『미술사와 시각문화』 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_____,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기류사연구」,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_____,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_____, 「조선후기 도자의 대외교섭」,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7.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이원복, 「朝鮮後期の 茶畫: 차 그림의 대세와 盛行要因을 中心으로」, 『東垣學術論文集』 14집, 2013.

- 장진성, 「조선후기 고동서화 수집열기의 성격: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사회평론, 2004.
-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미술사논단』 29, 한국미술연구소, 2009.
- 최공호, 「한국공예감식의 변천-문방청완의 향유와 眼法」, 『미술사학』 2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 황정연, 「조선후기 서화수장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 홍선표, 「조선후기 회화에호 풍조와 감평활동」, 『미술사논단』 5, 한국미술연구소, 1997.
- 森達也, 「일본에서 출토된 한국 토기·도자기」, 『東北亞陶磁交流展』,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
- 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吳器茶碗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
- 『中國陶瓷全集』 6 唐·五代, 臺北: 錦繡出版, 1999.
- 廖寶秀, 「歷代茶器述要」, 『也可以清心~茶器, 茶事, 茶畫特展』, 臺北: 故宮博物院, 1992.
- 淺川巧, 『朝鮮陶磁名考』, 東京: 朝鮮工藝刊行會, 1931.
-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研究』, 大阪: 關西大學出版部, 1987.
- 中野晴久, 「常滑の急須 その成立期の様相」, 『常滑市民俗資料館 平成14年度特別展圖錄』, 2002.
- 谷晃, 「御茶碗焼入目帳と新渡焼物御印判帳」, 『高麗茶碗-論考と資料-』, 京都: 川原書店, 2003.
- 鼎談, 「高麗茶碗づくりをめぐる」, 『高麗茶碗-論考と資料-』, 京都: 川原書店, 2003.
- 前田榮作·水野鑛造, 『尾張名所圖會 解き散歩』, 名古屋: 風媒社, 2006.
- 鈴木裕子, 「遺跡出土の煎茶道具-東日本」, 『研究紀要』 第16号, 京都: 野村美術館, 2007.
- 稻垣正宏, 「17世紀の遺跡から出土する煎茶道具」, 『周縁の文化交渉學シリーズ1 東アジアの茶飲文化と茶業』, 大阪: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点, 2011.

The Origin of the Joseon Side-handled Porcelain Teapot of the 19th Century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ang Byungsun*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origin of the side-handled porcelain teapot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Joseon Dynasty's tea culture, literature sources, and tea wares, I have investigated that the production of the 19th century Joseon porcelain teapot has been inspired by Chinese tea culture as well as Japanese tea ware.

The teapot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ell demonstrates the new style of side-handled type. In general, the Joseon porcelain teapots produced in the 19th century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three type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handles: the over round handled type, the rear handled type, and the side handled type.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the over and the rear handled teapots from this period. The particular style was influenced by both the traditional Joseon and the Chinese style. However, the side-handled type such as the one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irst appeared in the 19th century.

I investigated that the teapot of Changsha kiln of China in the Tang Dynasty would be the first example of the side-handled type. In China, side-handled teapot was produced in the Yue kiln and Fuzien kiln during the Song Dynasty but the style didn't earn much popularity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y. Even so, the Chinese side-handled teapot was imported and welcomed in Japan during the Edo period. In the 18th century, the Japanese tea masters of Kyoto made the side-handled teapot in Japanese taste similar to the Joseon side-handled teapot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ince then, many potters of the Tokoname and Kyoto area produced side-handled Japanese teapots.

In the 19th century, Chinese tea culture and tea ware were in vogue among Joseon scholars, and the Japanese wares were imported and used in the royal ceremony. The emergence of the

* Professor, Korea University

new style of the teapot such as this particular piece with the side-handle must have been adorned among the Joseon scholars who fancied exotic foreign goods.

The prototype of the side-handled teapot was inspired by Japanese teapot imported in the 19th century. Nevertheless Joseon potters intermingled the different features of the three cultures of Joseon, China, and Japan and produced the hybrid, which reflects the sophisticated taste of Joseon Dynasty's scholars.

Key words: Joseon Porcelain, Teapot, Nineteenth century, Kyusu, Tea ceremony, Side-handled teapot, Tea ware